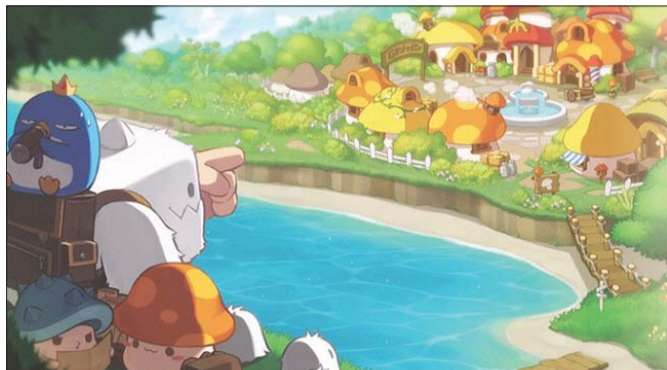


# 팬덤 확보가 성공으로 직결... 게임업계 “찐팬을 잡아라”

엔씨 ‘리니지’ 런저씨 팬덤 형성 ‘리니지W’ 구글·앱마켓 1위 차지 넥슨 ‘메이플스토리’ 길드·파티 등 커뮤니티 기능 강화로 ‘락인’ 효과 넷마블 ‘세븐나이츠’ 카페와 연동 직원이 운영진 맡아 유저들과 소통 라인게임즈 ‘엑소스 히어로즈’ 등 캐릭터 코스튬으로 팬덤 끌어모아



넥슨의 대표 게임 ‘메이플스토리’.



넥슨 캐릭터 코스튬 자율도를 높인 ‘엑소스 히어로즈’.

라인게임즈

국내 게임업체들이 팬덤 확보 전략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에 팬덤을 형성한 게임들이 일종의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면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들이 열성 팬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유인책을 쓰며 노력하고 있다. 10년 넘게 서비스를 이어온 리니지, 메이플스토리부터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게임들에 이르기까지 팬덤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 ◆10년 넘게 게임 이끌어온 ‘리니지·메이플’ 팬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는 1998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공고한 팬덤층을 형성했다. 당시 출시한 게임으로써는 독보적인 메시지 기능, 유

저간 모임을 형성하는 혈맹 시스템을 도입하며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유저들이 게임 안에 몰입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리니지 세계관을 추종하는 ‘런저씨’ 팬덤을 만들 수 있었다.

이번 달 새롭게 출시한 리니지W도 팬덤을 기반으로 구글, 애플 앱 마켓 1위를 차지하며 상승장구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리니지W는 출시 첫날 하루 최고 매출 기록을 갱신했다. 출시 첫날 기록한 매출은 약 16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전 기록은 지난 2017년 출시된 리니지M의 107억원이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도 마찬가지다. 길드, 파티 등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서 일종의 ‘락인’ 효과를 형성했다. 또

운영자가 직접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게임사가 유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 ◆국내 최대 팬클럽 확보한 세븐나이츠

넷마블의 세븐나이츠는 출시 처음부터 팬카페 구축에 힘을 들였다. 모바일 게임 화면에 진입해서도 세븐나이츠 네이버 카페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연동을 해놓음으로써 게임과 팬카페의 연동성을 강화했다. 그래서 현재 110만명이상이 이용하는 국내 모바일 게임 중 최대 게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었다.

넷마블은 신규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도 팬카페에 해당 소식을 먼저 공유하는 등 커뮤니티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또, 유저들 스스로도 해당 팬카

페 안에서 게임 공략법을 공유하는 등 자유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넷마블 직원들이 카페 운영진이 돼서 유저들과 소통에 나서는 점도 특징이다. 각각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GM엘레나’, ‘CM카린’ 등의 명칭을 달고 있는 게 특징이다. 운영진에 따라 게시글 업로드 빈도수가 다르고 말투도 달라서 일종의 캐릭터가 형성되었다. 특정 운영진은 카페 내에서 팬덤이 형성돼 있는 경우도 있다. 세븐나이츠 팬카페가 일종의 유희의 장이 될 수 있는 이유다.

## ◆엑소스·미니어스, 코스튬 기능으로 팬 모집

이용자 취향에 맞춘 코스튬 기능을 추가해서 팬덤 형성에 나서는 게임사들

도 있다. 라인게임즈의 ‘엑소스 히어로즈’와 빌리빌리의 ‘미니어스: 작지만 놀라운 모험’이 대표적이다.

엑소스 히어로는 캐릭터의 옷 색깔을 부분별로 맞추는 염색 시스템을 지원한다. 기존 수집형 게임 공식에서 벗어나 캐릭터 코스튬의 자율도를 높임으로써 팬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페이트코어라 불리는 캐릭터 옷의 색을 마음대로 조합함으로써 유저의 자율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그리고 캐릭터 수집형 게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원하는 모습으로 꾸밀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팬덤층이 형성됐다.

빌리빌리의 피규어 수집형 RPG 미니어스미니어스는 현재 약 80종 이상의 피규어를 수집할 수 있고 피규어 진열장, 코스튬 기능을 통해 마니아들의 취향을 공략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자신이 평소 가지고 싶었던 피규어를 게임 속에서 수집하고 심지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니어스를 즐기는 유저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팬덤을 바탕으로 미니어스는 출시 후 3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글플레이스토어 게임 최고 매출 기준 10위 권대를 기록하고 있다.

/김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사진 왼쪽부터)조원석 LG유플러스 기업인사팀장, 김창도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업총괄이사, 하승철 센코 대표가 참석한 모습. /LG유플러스

##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안전 플랫폼 개발

LGU+, 산업안전협회·센코와 협약 작업장 3D 시각화, 시뮬레이션 만들어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사고시 즉시 대응

LG유플러스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센코와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의 ‘통합환경·안전·보건 플랫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5인 이상)는 인력과 자금력 한계로 규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규제 내용 및 이행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마땅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약 5만여 개가 우선 규제 대상이 되고,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66만여 개가 추가로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LG유플러스는 ▲국내 최고의 종합안전컨설팅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국내 유일의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기술과 3D 모델링 등 디지털 트윈 기술을 보유한 ‘센코’와 협력해 ‘통합 환경·안전·보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통합안전플랫폼을 통해 사업장의 공정, 설비, 안전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 3D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돕는다.

통합안전플랫폼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법정 의무교육, 안전진단, 안전점검의 표준메뉴얼과 작업수칙 등을 디지털화해준다. 또 클라우드화된 자동관리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반복되는 오프라인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화, 데이터베이스(DB) 기능을 제공한다.

각종 센서, CCTV, 공간 3D모델링 등을 활용해 각 사업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전환해 작업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고발생 감지 시 미리 정해져 있는 자동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에 따라 사내에 즉시 사고전파를 하고 119/112 등 긴급신고까지 가능하게 한다.

/채윤정 기자 echo@

## 슈퍼카 그 이상의 힘... 아빠들의 ‘로망’

### 자동차 시승기

#### 아우디 익스피리언스

e-트론 ‘아이언맨 차’ 현실로 구현 Q8 기술 총망라 끝판왕 대형 SUV RS7 4리터 V8엔진... 폭발적 가속

아우디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수준 높은 고성능을 구현해 많은 마니아층을 거느리는 브랜드다. 최근에는 전동화 작업을 통해 깨끗한 브랜드로도 거듭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아우디의 다양한 차량을 타고 여행을 떠나 봤다. 아우디 e-트론과 Q8, RS7까지 다양한 매력을 가진 모델들로 도심과 고속도로, 와인딩 구간 등을 두루 경험했다.

e-트론 GT는 출발 전 슬라럼 체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아이언맨’ 차로도 잘 알려진 모델, 결모습은 영화에서 봤던 그것을 최대한 현실로 구현해냈고, 성능 역시 아이언맨에 걸맞은 강력함을 자랑했다.

최대토크가 84.7kg·m, 출발 가속이 폭발적이었다. 공기저항계수가 0.24cd에 불과해 짧은 거리에서도 충분한 가속력을 발휘했다. 브레이크 구간에서는 신속한 감속, 슬라럼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차체 균형감 덕분에 최적의 라인을 따라가기 어렵지 않았다. 급격한 회전에서는 콧노사가 작동하면서 밀림을 완전히 방지했다.

여기에 e-트론 GT RS는 에어 서스펜션에 뒷바퀴 조향까지 가능해 회전 반경까지 최소화했다. 좁은 길에서도



아우디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아우디코리아

쉽게 움직일 수 있고, 고속 안정성도 높였다.

Q8은 아우디 기술을 총망라한 내연기관 ‘끝판왕’ 격 대형 SUV였다. 큰 내부 공간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으로 장거리 여행을 더 편하게 해줬다. 뒷바퀴 조향으로 깊이 굽어진 코너 구간도 부드럽게 진입할 수 있었다. 주차장에서 빠져나오기도 쉬웠다.

그러면서도 4리터 V8 엔진으로 최고 출력 600마력을 내는 고성능차다. 토크가 81kg·m으로 e-트론 수준, 폭발적인 가속력과 안정감을 자랑했다. 패밀리 SUV로 아빠들의 ‘로망’으로 떠오른 이유도 분명했다.

가장 인상 깊은 모델은 RS7이었다. A7의 고성능 버전, 쿠페형 외관에 걸맞게 성능을 극대화한 차다. 대형 SUV인 Q8에 들어가는 4리터 V8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추가 장착해 슈퍼카 그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있다.

RS모드로 가속페달을 밟으니 시원

한 배기음과 함께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속도감을 몸이 아닌 클러스터를 보는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건 무서운 점. 빠르게 코너를 돌 때도 차체 흔들림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노멀 모드로 변경하면 영락없는 럭셔리 세단이다. 아주 조용하고 안정적이다. 힘이 워낙 강한 탓에 가속 페달을 예민하게 다루야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슈퍼카와 같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다. 럭셔리와 고성능을 함께 담은 차들은 많았지만, RS7처럼 완벽하게 극과극으로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차는 처음이다.

아우디의 가장 큰 단점은 국내 도로에서 고속카메라를 안내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고 아우디를 느끼기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아우디 위에서 도로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여행이 아우디에 어울릴 수도 있겠다 싶었다.

/김재용 기자 juk@